

소방관 없는 119지역대 전남에만 32곳

전국 417곳 중...상주인력 없이 소방교육 받은 주민들이 운영 해남·고흥 5곳씩...관할인구 10만명 넘어 소방인력 충원 시급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만 소방관이 단 한명도 없이 주민으로만 운영되는 '무인 119지역대'가 바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 무인 119지역대에서 소방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민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전문 소방인력 배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계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소방청으

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19지역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7곳 119지역대 중 상주 소방공무원 없이 주민으로 구성된 무인 119지역대는 32곳으로, 모두 전남에 위치해 있다.

무인 119지역대는 소방교육을 받은 주민으로 구성된 전남 의용소방대가 배치돼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전남 각 시·군별로는 해남(화산, 화원, 마산, 의신, 지산)과 고흥(도화, 포두, 두

원, 도덕, 대서)의 무인지역대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광양(진월, 봉강, 옥곡)과 담양(대전, 입면, 동화), 강진(작천, 장동, 용산)이 각각 3곳, 여수(율촌, 삼산)와 나주(반남, 왕곡지역대), 영암(금정, 군서), 화순(동면, 도암), 무안(몽탄, 망운), 함평(해보, 언다) 등이 각 2곳, 보성이 예당지구대 1곳 등으로 나타났다.

무인 119지역대가 있는 32곳의 관할 인구를 모두 합치면 10만 2165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소방력 부재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소방서 개청을 앞둔 함평 2곳은 전

담 의용소방대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지역대의 경우 각 시·도 조례를 통해 인원이 확정돼야 충원이 가능하다"면서 "무인 119지역대의 경우 내년 이후에야 소방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전국에서 전남에만 유일하게 무인 119지역대가 존재해 해당 지역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전문 소방인력이 없으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인력충원 등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사랑의 집수리 봉사 광주시 북구 중흥1동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이 8일 중흥1동 저소득 어르신 주택에서 '행복동지 사랑의 집수리'를 하고 있다.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은 오는 12월까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 130세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교육청 성인식 개선 대책 앱 통한 24시간 신고·상담 성비위 교사 해임 등 엄중조치

광주시교육청이 교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접수를 24시간 받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학생·교사·학부모 성인식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한 뒤 지속적인 성인식 개선에 들어간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인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광주 또 사립고 교장 성추행 사건, 사립여고 교사 성희롱·성추행 사건, 또다른 사립여고 기간제 교사 성폭행 의혹 사건 등 교단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며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신고채널 다양화 ▲성비위 교사 교단 배제 및 엄중처벌 ▲실태조사를 통한 성교육 정책방향 수립 ▲스쿨미투 발생학교 학생 보호와 학교안정화 대책 마련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및 사례 보급 ▲성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업자료 개발·보급과 연수 실시 계획 등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117CHAT'을 통한 24시간 신고·상담이 눈에 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경찰·교육청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신고도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성비위 사실이 드러난 교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거, 해임·파면 등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 광주시의회에서 요구한 광주 전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쿨미투 전수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교원 전체를 사실상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짓는다는 일각의 비판, 전수조사를 위해선 경찰과 교직원 수십명이 장기간 투입돼야한다는 현실적 어려움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40.7%...전국 1위

어린이 사망자 한명도 없어

광주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9월 말 기준)이 전년 대비 40.7%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사망자수는 지난해보다 8.5% 감소한 2773명이었다.

지자체별 감소율은 광주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21.1%), 제주(-16.1%), 경기(-15.4%), 전북(-13.1%) 순이었다.

광주의 경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가 지난해보다 42.3% 감소했으며,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와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각각 28.9%, 60.0% 감소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명이었지만, 올해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올해 초부터 자치구, 경찰, 교육청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체를 구성해 합동단속,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실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58%에 달하자 경찰청 분석자료를 활용해 무단횡단이 잦은 20여 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신호등 표준모델을 보급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했다.

자치구, 경찰과 협업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소화전 등 6곳을 선정,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집중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기도 했다.

/김형호 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3	달뜨기	06:16
해질	18:06	달짐	18:30

사실물 안전주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었다.



구름	구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광주	구름많음	12/22	보성	구름많음	9/20
목포	구름많음	13/21	순천	구름많음	13/22
여수	구름많음	15/20	영광	구름많음	11/22
나주	구름많음	10/22	진도	구름많음	11/21
완도	구름많음	14/22	전주	구름많음	10/22
구례	구름많음	10/21	군산	구름많음	11/20
강진	구름많음	11/22	남원	구름많음	9/21
해남	구름많음	10/21	흑산도	구름많음	16/22
장성	구름많음	10/21			

시해	남부	남해	서부	간조		만조	
				목포	여수	목포	여수
앞바다	북~북동	0.5~1.0	남동~남	0.5~1.5	19:36	02:03	14:22
면바다	북~북동	0.5~1.5	남동~남	1.0~1.5	02:45	09:07	15:05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동)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면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지외선	보통
미세먼지	좋음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남생이' 대체서식지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서식지 파괴, 불법 포획, 수질오염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생이' 안정적 보호를 위해 남생이 친환경 대체서식지를 운영한다. 남생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며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 민물 거북으로 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보호 가치가 높은 법정 보호종이다. 월출산사무소는 국내 최

초를 특허를 취득한 남생이 대체서식지 조성 기술을 접목해 수면부, 육지부, 수면굴 등을 설치했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심용식 자원보전과장은 8일 "주민식지를 운영한다. 남생이는 친환경 대체서식지 첫 방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남생이 구조와 치유를 비롯한 서식지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영진 기자 jbh@kwangju.co.kr

커피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노년기 수면 효율 하락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20년 넘게 마시던 노년기에 수면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연구팀은 "무작위로 선정한 60세 이상 노인 16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커피 섭취가 노년기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평생 누적 커피 소비량'에 따라 54명씩 3개 그룹으로 나눴다. 각 그룹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은 각각

3.06잔, 1.3잔, 0.64잔이었다. 이후 그룹별로 고화질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고, 수면의 질 척도 검사(한국판 피츠버그 수면 질 검사)를 통해 수면의 질을 평가했다.

연구결과 하루 커피 섭취량이 3잔 이상씩, 20년 이상으로 많았던 그룹은 수면의 질 평균 부피가 70㎖로, 두 그룹의 평균 90㎖보다 20% 이상 적었다. 또 수면의 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채희종 기자 chae@연합뉴스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호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가람 (주)성원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